



[산업] 반값 갤럭시폴드? 삼성전자 폴더블 대중화 신호탄 쏘나 06



Economy

|            |                  |           |                       |
|------------|------------------|-----------|-----------------------|
| 코스피        | 2112.37 (-49.14) | 코스닥       | 750.36 (-9.14)        |
| 금리 (미국 3년) | 0.817 (-0.02)    | 환율 (원/달러) | 1204.70 (+5.30) (25일) |



김혜연 앤섬 대표가 24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0 퓨처푸드테크코리아'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코로나, 지구촌 밥상 바꾸다 식품 새 지평 여는 푸드테크

2020 푸드테크 포럼  
감염병 확산에 비대면 확산 장보기·외식문화 완전히 바뀌어 푸드테크 주요 투자업 급부상 식품산업 새로운 기회 열릴 것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기사 L7·L8면> 기초 강연자로 참여한 홀거 토스카 유니레버 식품 연구개발(R&D) 센터장은 "우리는 앞으로 최소 1년 가량을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한다"며 "육류를 기피하고 채식 기반 음식을 선호하며, 음식의 원산지과 유통 과정 정부의 투명성을 원하던 소비자들의 변화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식물성 고기인 대체육의 글로벌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식물성 고기 '엔리미트'를 만든 지구인컴퍼니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엔리미트의 해외 수출량은 2~3배 급증했다. 민금채 지구인컴퍼니 대표는 "사람들은 이제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먹는 행위가 지구 환경에도 이로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이후 식품산업에는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언택트)의 확산은 외식 문화를 완전히 바꿀 전망이다. 사람들

은 이제 로봇이 내려주는 커피와 무인 자동차 속에서 혼자 먹는 식사에 익숙해질 것이라 예상도 나왔다. 핸드립 커피를 만드는 로봇 바리스타를 처음 개발한 황성재 라운지랩 대표는 "인도 위의 카페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로 위의 카페'를 생각하고 있다"며 "무인 자동차가 드라이브 스루로 커피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면, 차량이 도로 위의 카페, 레스토랑이 되는 세상이 5년 안에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에서만 200조원에 달하는 식품 산업은 이제 푸드테크를 만나 최고의 투자가치가 있는 시장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종훈 롯데액셀러레이터 투자본부장은 "사람들은 이제 돈을 더 내서라도 이롭고, 편리하고 건강하며, 더욱 개념있는 음식을 찾고 있다. 하루 3끼를 그렇게 먹는 충실한 고객이 전세계 70억명에 이른다"며 "음식의 미래를 위한 푸드테크 투자는 이제 투자업의 주요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현대중-대우조선 합병 가속 EU "선박수주 경쟁제한 없어"

노동계, EU 기업결합 심사 개입 심사 목적 달라 3자 영향 제한적

결합심사 결과 통보 기한이 오는 9월로 정해지면서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한국 조선업계의 최대 이슈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노동계가 기업결합 심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심사에 정식 이해관계자인 '제3자' 지위로 개입해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금속노조가 EU의 결합 심사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금속노조의 입장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양사의 합병으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EU의 심사 목적과는 결이 다르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는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 경쟁 당국이 승인을 통보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자리 걸음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인 6개국(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가운데 처음 승인 물꼬가 트여 다른 국가에서도 기업결합 승인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시 유예되면서 예상보다 길어졌다.

세계 관계자는 "노조는 양사의 합병이 진행되면서 팀을 꾸려 지난해 유럽으로 이동해 담당자들을 만났지만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오히려 EU에서는 가스선 독과점 여부에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EU에서 발표한 중간심사보고서에도 양사의 합병으로 유조선 탱커,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등에서 전세계 선박 수주 경쟁을 제한할 우려는 해소됐으며 다스선 분야는 살펴볼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EU가 지난 4일 양사의 합병에 대해 심사를 재개하는 등 기업

이에 따라 해외 기업결합심사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으로 예상됐던 EU의 승인이 떨어지면 나머지 경쟁당국의 심사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 '기안기금' 출범 한달... 긴급지원 골든타임 놓치나

네차례 회의에도 신청일 못잡아 항공·해운업계 '고사위기' 우려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기금운용심의회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속도를 못내고 있다.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기금 운용심의회는 네 차례의 회의에도 아직 신청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안기금이 마련된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 기금운용심의회는 이날 5차 회의를 열고 신청공고일정, 채권발행 문제 등을 논의했다. 기안기금 자금지원 절차는 지원대상 업종지정-지원대상기업 기준확정-기

금지원 신청공고-기업자금지원신청-주채권은행의견조회-기금운용심의회 심의-자금집행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기금운용심의회를 출범하며 기안기금 지원대상 업종을 항공·해운업과 그 외에 금융위원회 관계부처가 지정하는 업종으로 명시했다. 지원 대상

기업요건은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영향이 큰 기업으로 총 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 근로자수 300인 이상이다. 문제는 기금운용심의회가 한달째 운영되고 있음에도 다음 단계인 신청일정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당초 업계에서는 이달 중순에는 공고가 날 수 있

다는 관측이 대다수였지만 지금까지 미뤄진 상태다. ◆항공업계 스스로 해결책 찾아 살길 모색 기안기금 지원 대상으로 첫 타자로 꼽히던 대한항공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갈 전망이다. 지원 시기도 불명확한데다 지원조건 또한 까다로운 기안기금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기안기금을 지원받게 되면 지난 5월 기준 근로자수를 최소 90% 이상 유지해야 하고,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정상화 이익도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 금액의 최소 10%를 신주인수권부채 등 주식연계증권으로 취득해야 한다. 현재 대한항공은 코로나19 관련 의약

품 및 의료장비와 해외공장 재가동에 따른 부품장비 등의 항공운송이 증가하고 있다. 항공 화물 운임지수인 TAC지수를 보면 홍콩-북미 항공 화물운임은 지난 1월 1kg당 3.1달러에서 5월 7.7달러로 올랐다. 때문에 대한항공은 화물 운송 상황을 보아가며 기안기금 지원요청 시기를 늦출 예정이다. ◆해운업계, 기안기금 기다리다 고사위기 올지도 해운업계는 화물과 운임 모두 타격을 입으면서 신청일정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현재 해운업에서 기안기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HMM과 팬오션, 대한해운, 장금상선 등 10여 곳이다. 다른 해운업체들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가동한 6600억 규모의 지원프로그램과 해양수산부가 시행한 1조25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이 기안기금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